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3 ~ 11/1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출판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3	알고 보면 관참은	마가	불광출판사	8	우리말 능엄경	황정원	운주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도	9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독	비움과소통
5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10	선과 생명의 인지장의	남희근	마하연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생태위기’ 원인은 인간의 ‘이기주의’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종교대화
최현민, 김종욱, 종범, 본각, 조현철, 이정배, 구미정 지음
운주사 펴냄
1만2천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종교대화1〉은 불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 지구 전체의 공통 문제인 생태 문제에 대해 두 종교가 지닌 전통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한 대화록이자 보고서다.

한국에는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두 종교가 많은 저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름의 두 종교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배우는 진지한 대화를 해오고 있었다. 책은 가톨릭 수행공동체인 ‘종교대화 씨튼연구원(원장 최현민 수녀)’에서 2009년에 진행된 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 강좌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책은 세 명의 불교학자와 세 명의 그리스도교 신학자 및 종교학자를 중심으로 9개월 동안 진행된 강좌를 묶은 것으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생태적 삶’을 주제로 하여 어떻게 두 종교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회심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안에 깃들여 있는 생태적인 사상과 전통을 영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풀어내고자 했다.

최현민 원장의 ‘생태위기의 관점에서 종래의 자연과 인간 이해에 대한 성찰’에서는 자본주의와 생태위기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자본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신교전주의에서 말하듯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기보다 호혜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은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의 본성론과 상통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욱(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초기불교와 상좌불교에서의 생태 영성’에서는 고집멸도의 사성제(四聖諦)에 입각하여 생태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지와 무명으로 보고 이를 깨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 팔정도를 실천하여 사는 것 자체를 생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불교의 정수가 생태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불교 영성이 곧 생태 영성’임을 말해준다.

종범(통도사 선덕, 전 중앙승가대 총장) 스님의 ‘선과 생태 영성’에서는 마음과 반야지혜, 정도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선과 자연과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나’라는 존재는 모든 인연에 의해

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만나
—종교대화2—
최현민 지음
운주사 펴냄
1만3천원

불교·그리스도교, 위기의 ‘생태’ 모색
팔정도 실천...생태문제 해법

다른 두 종교의 영성 만날 수 있을까
이웃종교 이해는 ‘소통’에 꼭 필요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자연이 곧 자기 몸인 줄 모르고 생태를 파괴시켜 온 우리에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존재 근원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적 생태 해법의 핵심은 ‘마음 닦음’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현민 원장의 ‘도전(道元)의 생태 영성’에서는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 도겐 선사가 말한 ‘산과 물, 곧 자연 자체가 붓다의 말씀’에 주목한다. 즉 산수(山水) 안에서 붓다의 모습을 발견하고 산수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이다.

본각(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스님의 ‘화엄과 생태 영성’에서는 모든 존재가 끝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 결핍 없이 상호 의존한다는 원용무애적 존재관의 화엄사상을 통해 생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현철(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의 ‘생태 영성과 성서’에서는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계약’을 우주적 차원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의 우주적 계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을 넘어 자연까지도 포괄한다.

이정배(감리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성찰하면서 이러한 성찰을 매개로 생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미정(숭실대 기독교학과) 강사의 ‘그리스도교적 생태 영성-사회적 관점’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타나 연못을 둘러싼 경쟁의 원리,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얽은방이는 경쟁의 원리 안에서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최현민 원장의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에서는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 회복의 방법으로 불교와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생태 영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만나-종교대화2〉는 가톨릭 수도자(수녀)인 최현민(씨튼연구원) 원장이 한국의 전통 종교의 하나인 불교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대화하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고민한 흔적을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한 종교 대화록이다.

영성(靈性)이란 삶에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으로, 우주 또는 세상에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 또는 초월적인 성품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고등 종교들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성은 종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데, 이는 각 종교가 표방하는 교리나 수행 전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에 있어 영성은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불교에서 영성은 자기 안의 불성을 발현하는 것을 중시하기에 절대자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두 종교의 영성이 과연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책은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향해 함께 순례하는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수행공동체인 씨튼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 강좌에서 저자가 강의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제1장에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대화와 관련하여 종래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역사적 차원과 궁극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과 부처님의 정체성을 비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불교의 연기를 비교의 주제로 삼고 있다. 제4장에서는 양 종교의 인간관을 하느님의 모상과 불성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양 종교의 인간 이해의 또 다른 측면으로 그리스도교적 인격과 무아를 비교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양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인 하느님 나라와 열반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제7장부터 9장에서는 양 종교에 몸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걸어갈 ‘제자 됨의 길’을 믿음과 수행(명상), 그리고 기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일 것이다. 특히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는 현대인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종교 다원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더 불어 살아가는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면이 아닐 수 없다. 가톨릭 수도자인 저자는 불교를 접하면서 자기 안의 가치들과 수많은 소통을 해야만 했고, 그 소통의 과정들을 이 책에 담았다고 말한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ul.com

농업과 농촌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

임경수 지음 | 들녘 펴냄 | 1만3천원



“내가 사는 방식이 마을을 살려야 하고, 마을을 살리는 방식이 지역을 살려야 하며, 지역을 살리는 방식이 지구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퍼머컬처(Permaculture)의 원리이자 정신이다. 책은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퍼머컬처’의 원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소개한 책이다. 퍼머컬처의 원리에 따라 농장을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장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퍼머컬처 적용 사례와 관련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퍼머컬처는 1970년대 호주의 데이비드 홀그린(David Holmgren)과 빌 몰리슨(Bill Mollison)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처음 ‘영구적인(PERManent) 농업(agriCULTURE)’이라는 두

‘생태적 삶’ 추구하는 ‘퍼머컬처’ 소개
‘소극적 유기농업’에서 ‘순환농업’으로
‘퍼머컬처’로 인류의 삶 디자인해야

단어의 조합으로 부터 파생된 이래로, 퍼머컬처의 의미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농업) 전략을 찾는 본래의 의미에서부터 인간으로서 지구와 한정된 자원들과 관련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면의 생활양식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은 논밭은 물론 사람의 몸을 망가지게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유기농업이다. 그러나 자연적 유기물질의 사용만을 고수하는 소극적 유기농업은 진정한 유기농업이라 할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순환농업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을 시작해야 한다. 순환농업은 토양에 투입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도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단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집과 마을과 사회도 자연 순환의 원리에 맞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 책에 제시된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천 예를 통해 우리는 이 같은 디자인의 미덕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굳이 퍼머컬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주거지에서, 농장에서, 지역에서 순환을 추진해온 실천가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요하는 경쟁원리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은 농업에서 출발하여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퍼머컬처’다. 퍼머컬처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디자인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해지고 다음 세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 ‘농장살림’에서 퍼머컬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원리의 응용과정을 통해 하나의 농장을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장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급적 우리나라에서 퍼머컬처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 소개하고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덧붙이고 노력했다. 퍼머컬처를 당장 이해하고 싶다면 2부를 먼저 읽어도 좋다. 하지만 완전하게 독립된 개인으로 살 수 없듯이 하나의 농장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 그리고 농장이 속하는 마을 및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장만이 섬처럼 외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농업의 전망을 살펴본 1부 ‘농업살림’과 마



호주 크리스털워터즈 생태마을의 쓰레기 수거함

을과 지역공동체의 대안을 사회적 경제와 접목하여 모색한 3부 ‘농촌살림’도 퍼머컬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이 두 개의 ‘부’에서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운동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가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은 무겁고 싶은 서울을 벗어난 한 개인의 탈출기이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섯 번이나 이사를 한 시말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혼자 제대로 살겠다고 해도 제대로 살아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한 먹혀들지 않는 투정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나는 소망하고 있다. 나처럼 서울을 탈출하여 진정한 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저자는 농업과 농촌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껏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통찰이 이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다.

박재원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식의 표상에 불과하다”

불교심리학의 정수
유식삼십승 唯識三十頌 강의

이계목 역해
246*178mm | 흑백 | 332쪽 | 15,800원

마음 밖에 따로 대상이 없음을 설한 대승 심리논서

대소승을 막론하고 <유식삼십승>은 불자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필독서다.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 안심(安心)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불교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까닭이며, 마음을 주제로 하여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식삼십승 해설은 동학사 강원본을 참조하였으며 일본 龍名大學 불교학 교수인 深浦正文의 唯識三十頌論 解説本을 관 응노사가 번역한 譯本(역본)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풀어 엮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lumSolong (02)2632-87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